

제철맞은 주꾸미, 수입산 판친다

본격적인 주꾸미 철을 맞은 가운데 시장에서 중국·태국 등지에서 수입된 주꾸미가 유통되고 있어 단속이 시급하다. 소비자가 수요가 늘며 주꾸미 값이 오름에 따라 시장에서 원산지 표시 없이 거래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꾸미는 4월과 5월에 주로 서해안지역에서 많이 생산되고 있다. 국내산은 발이 짧고 검은 색깔을 띠고 있지만, 현재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수입산 주꾸미는 머리가 크고 다리도 길며 국산에 비해 하얀색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16일 농림수산검역검사부 목포사무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유통되고 있는 주꾸미는 중국과 베트남, 태국산으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국내산과 식별이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다. 가격 또한 현재 국내산은 kg당 3만

원산지 표시 없이 유통 소비자 혼선



국내산 다리 짧고 검은색



수입산 머리 크고 하얀색

원인 반면 수입산은 1만원에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주꾸미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은 원산지 표시가 안 돼 있

어 자칫하면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수입산을 구입할 수도 있다.

지난 13일 목포시 모 시장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말다툼이 있었다.

구매자는 “집에서 보니 이상한 냄새가 나서 이웃에게 물으니 수입산이라 하더라 왜 수입산이라고 말해주지 않았느냐”고 따졌다.

이에 판매자는 “국내산이니 수입산이니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당신이 싸다고 구입했지 않느냐”는 주장을 폈다. 상인들은 국내산과 수입산에 대해 구별을 하지 못한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해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다. 반면 문제가 되면 국내산이라는 이야기를 안 했다는 등 애매 모호하게 변칙 수법을 쓰고 있어 시·군·자치단체를 막고 있다.

소비자들은 “시장 곳곳에서 노점 상인들이 이러한 수법을 사용하고 있어 수입산 전문적인 판매책이 있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서산대제 300년만에 국가 제향으로 재현

해남 대흥사서

문헌고증 완벽복원

일제 강점기 이후 맥이 끊긴 서산 대제가 300년만에 국가 제향으로 재현됐다.

해남 대흥사는 16일 휴정 서산대사(1520~1604) 탄신 492주년을 맞아 문헌 고증을 통해 일제강점기 이후 사라졌던 서산대제(국가 제향)를 재현했다.

조선 정조 이후 매년 봄·가을에 봉양해 오던 것을 당시 문헌의 고증을 통해 300년 만에 재연했다.

박철환 해남군수가 초한관, 안동준 해남 경찰서장이 종헌관으로 제향을 올렸다. 김용환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찬 문화재청장 등도 자리를 함께했다.

대흥사 석은 총무스님은 “호국대성사인 서산대사를 추모, 선양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시향축문'과 표창사 '향례흥기', 제물배치도인 '진설도'를 근거로 유교식 제향으로 완벽하게 복원했다. 특히 조선조 독창적인 제문이 그대로 남아있는 사제는 종묘제례를 제외하고는 서산 대제가 유일하다고 대흥사 측이 밝혔다.

대흥사 석은 총무스님은 “호국대성사인 서산대사를 추모, 선양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

면서 “앞으로 서산 대제를 국가 제향으로 치르고 수충사(淸安寺)와 함께 남북공동 제향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향에 앞서 예조 예제관 추모봉향 행렬이 대흥사 해탈문에서 표창사까지 이어졌다. 서산대사 유물전시관 개관과 함께 나라사랑 글쓰기와 사생대회도 열렸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1004섬에 학교폭력은 없다

신안교육지원청, 유관기관 근절 협약

신안교육지원청(교육장 문상욱)이 유관기관과 손을 잡고 학교폭력 사전차단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발 벗고 나섰다.

신안교육지원청은 최근 지원청 2층 대회의실에서 신안군청, 목포경찰서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학교폭력 없는 안전하고 즐거운 학교 만들기를 위한 선포식과 지역별 ‘1004 행복지킴이’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신안군과 목포경찰서, 교원단체, 학원연합, 자율방범연합대 등은 유관기관 공조를 통한 학교 안전망 구축과 운영을 위해 교육공동체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목포경찰서와 신안 자율방범연합대와 연계한 야간 자율학습 귀가학생 ‘하룻길’ 도우

미 지원과 목포경찰서·목포검찰청 범죄예방재단과 연계한 학교폭력예방 강사지원, 신안군 CC-TV 통합 관제센터와 연계한 학교안전망을 구축했다.

또한 학부모 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학부모 학교폭력예방 교육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공공기관과 연계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확대 ▲권역별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각급 학교 교육과정 설명회시 학교폭력예방 교육을 위한 외부강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문상욱 교육장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교육 실현으로 교육공동체 구축과 유관기관 공조를 통해 안전하고 즐거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원남기자 wncho@

진도 소포리 쉬미항 등대 설치

높이 9m 이달중 공사 착수 7월께 완공

진도군 지산면 소포리 쉬미항이 밝아진다.

목포 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은 지산면 소포리쉬미항 입구에 백색 원형 구조의 등대(높이 9m·직경 2.2m)를 설치해 뱃길을 밝힐 계획이다. 이달중 공사에 착수해 7월께 완공할 예정이다.

쉬미항은 여객선·행정선 및 여선 등의 선박이 이용하는 소규모 어항이다. 하지만 항구 주변이 바위 및 기다란 해안지선에 가려져 주·야간 선박 입·출항시 많은 어려움이 따

랐다.

소포등대 설치사업은 항구 입구의 장애물로 인해 어업활동에 지장이 많다는 지역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시행된다.

강준수 진도해양교통시설사무소장은 “쉬미항 등대가 설치되면 선박이 항구 입구를 쉽게 찾을 수 있고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해상에서의 인명 및 재산보호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어업활동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영광 스포티움 진입로에 소나무 거리

720m구간 시민 현수 111 그루 식재

영광군 스포티움 진입도로에 소나무 거리가 조성됐다.

영광군은 최근 단주 사거리에서 스포티움 삼거리 720m구간에 군민 현수운동을 통해 ‘늘 푸른 소나무거리’를 조성했다.

가로수 현수운동은 각급 기관·사회단체와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애향심에 힘입어 현물 기증분 및 현금기증분 등 총 111그루를 식재, 5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특히 도로변 우측(현금 기증분)은 뿌리돌림 등 관리된 소나무를 식재하고, 좌측(현물 기증분)은 야산에서 직접 캐 식재해 특색있게 조성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소나무 소유의 고고한 품위를 갖춘 명품거리, 군민 참여의 거리로 거듭날 것”이라며 “앞으로 생육이 잘 되도록 소나무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조익성기자 ischo@



섬진강변 벚꽃 마라톤대회

하얗게 만개한 벚꽃길을 따라 지난 15일 열린 ‘섬진강변 벚꽃 마라톤대회’. 구례 마라톤동호회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1000여명이 참가, 곡성 압록유원지에서 구례읍까지 꽃길을 달리면서 봄기운을 만끽했다.

하얗게 만개한 벚꽃길을 따라 지난 15일 열린 ‘섬진강변 벚꽃 마라톤대회’. 구례 마라톤동호회가 주최한 이날 대회에는 1000여명이 참가, 곡성 압록유원지에서 구례읍까지 꽃길을 달리면서 봄기운을 만끽했다.

<구례 마라톤동호회 제공>

벼 농작물 재해보험 판매 NH농협손해보험 내달 2일부터

기후변화와 등에 따라 기상재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NH농협손해보험이 2012년 ‘벼 농작물 재해보험’을 5월 2일부터 판매한다.

이에 앞서 NH농협손해보험 전남지역총국(총국장 김영조)은 16일 전남지역총국에서 도내 지역농

협 농작물재해보험 담당자 220여명을 대상으로 올해 제도변경에 따른 상품 교육을 실시했다.

도내 각 지역농협은 농작물 재해보험 전담창구를 개설, 농가 가입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김영조 전남지역총국장은 “벼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농업인들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며 “올해 가입률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해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광주일보 창사 60주년을 축하합니다.

열린마음으로 작은소리에도 귀기울이는
고흥군의회가 되겠습니다.



국민의 권익을 대변하는 열린의회
고흥군의회